

한국교회 회복을 기원하는 5월 월삭기도회

총회에서는 제105회 총회 주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에 따른 주제사업의 일환으로 전국교회가 매월 첫날 새벽기도회에 한국교회의 회복을 기원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관련 설교영상과 설교문, 기도영상과 기도문, 공동기도제목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한국교회 회복을 기원하는 5월 월삭기도회” 자료를 보내드리니 교회에서 적극 참여해주시어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제 목: 한국교회 회복을 기원하는 5월 월삭기도회
2. 일 시: 2021년 5월 1일(목) 새벽기도회
3. 5월 주제: 가정의 회복
4. 참석 대상: 본 교단 소속 교회
5. 제공 자료: 설교문, 기도문, 공동기도제목 등

(※ 총회홈페이지에 설교영상(15분)과 기도영상(5분) 다운 가능)

- 붙임1. 5월 월삭기도회 설교문
2. 5월 월삭기도회 기도문
 3. 5월 월삭기도회 공동기도제목

회복의 기쁨이 넘치는 가정(엡 5:22~25)

“22.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3.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24.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5.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엡5:22~25)

지금 코로나 상황이 1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은 분위기입니다. 수많은 환자로 인하여 병원의 의료진도 힘들어 하고 집안에서 공부해야하는 학생들도 힘들어하고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해야하는 직장인도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소상공인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더욱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고 있는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다가 읽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만들어낸 “어느 초등학교의 방학생활 규칙”이라는 글입니다.

※ 코로나 방학생활규칙

1. 주는 대로 먹는다.
 2. TV를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3. 사용한 물건은 즉시 제자리에 둔다.
 4. 한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5.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 *위 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나를 것이다.

이 글을 읽다가 보면 집안의 긴장된 분위기를 즉시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만 거슬리게 행동하면 금방이라도 엄마의 불호령이 날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정은 언제나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곳입니다. 창밖에서는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쳐도 가정은 언제나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곳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누리던 포근한 사랑도 흔들리고 만남 그 자체가 가슴을 뛰게 했던 기쁨도 흔들리고 더구나 심과 안식을 보장하는 평안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좀 더 계속되면 가정마다 엄청난 사고가 터질 것 같은 불안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가정의 불안은 곧 사회의 불안이요 학교의 불안이요 일터의 불안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가정만 믿음위에 견고하게 서 있다면 우리들의 가정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다면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사회가 흔들려도 원상태로 회복될 수 있고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욱 건강한 사회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 간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가정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부부의 관계에 달려있습니다. 부부만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면 부부만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다면 자녀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부부가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3가지 기도제목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기도제목은 <아내에게 헌신하는 남편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도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하나님은 모든 남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비천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의롭지 못한 우리들을 위해 일생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지막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의 사랑은 바로 헌신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든 남편들에게 권고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듯이 아내에게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십시오. 어려운 때에 회사의 일도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모임도 중요합니다. 자기성장을 위한 배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내를 사랑하시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흘려 우리에게 헌신하셨듯이 아내에게 헌신하며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의 가슴이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의 가슴이 기쁨과 평화로 충만하도록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아내의 가슴 속에 흐르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는 아내에게서 멈추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 안에서 창의력이 날로 향상되고 용기를 내어 도전하고 아름다운 비전으로 충만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멋지게 성장할 것입니다.

둘째 기도제목은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도바울을 통해 권고하십니다. 22-23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됄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됄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아내들에게 권고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존경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를 존경하듯이 남편을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존경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 주님을 존경합니까? 우리는 시간과 물질과 모든 재능을 다 바쳐 기꺼이 주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존경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존경하고 섬기듯이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며 섬기시기 바랍니다. 비록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할지라도 남들처럼 대단한 성공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할지라도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세워주며 남편에게 쉼과 안식을 제공하는 슬기로운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은 그러한 아내의 존경과 사랑에 힘입어 때로 상관으로부터 무시를 당할지라도 때로 고객들로부터 거절을 당할지라도 때로 체력적으로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다시 새 힘을 얻어 가슴 뛰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도제목은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코로나가 아니어도 세상은 우리 가족들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 가정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합니다. 하늘의 복소리를 들어야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한 승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은 부족합니다. 사랑의 힘도 부족하고, 인내의 힘도 부족하고, 용서의 힘도 부족합니다. 악과 싸워 이길 힘도 부족합니다. 진리를 붙들 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살아야 잘 살 수 있습니다.

가정 같은 교회가 되고 교회 같은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집안에 들어가면 자녀들을 큰 소리로 혼내는 어른들의 고함 소리가 아니라 자녀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우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소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소리,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 소리, 상상만 해도 미소가 돌고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을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 안에 충만히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가정예배를 드리면 텅으로 얻는 축복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고민을 알 수 있고 자녀들은 부모들의 고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합니다. 진정한 가정의 회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가정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헌신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여기에 진정한 가정의 회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은 코로나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더 즐겁고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흔들리는 자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갈등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표와 바른 길을 보여주옵시고 악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부요한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국교회 회복을 기원하는 월삭기도회 5월 기도문

치유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섬김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은총의 선물로 가정을 주셨지만, 저희들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한국사회의 가정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혼율이 높아지고, 가족공동체의 해체를 염려하는 가정도 있나이다. 혼인하지 않고 살겠다는 비혼주의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저출산도 세계에서 가장 낮아졌습니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 덩크(DINK)족도 늘어나고 있나이다.

주님, 한국사회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마다 주의 평안과 사랑을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자녀는 형제 우애하고 부모를 공경하게 하옵소서. 가족이 기쁨과 소망의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건강한 가정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위기에 처한 가정으로 하여금 잘 인내하여 겸손히 화해하게 하옵소서.

새롭게 가정을 꾸리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회가 이들을 격려하며 보살피게 하옵소서. 새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형태의 가족 공동체들도 있습니다. 문화와 언어를 초월하여 하나가 된 다문화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늦게 결혼하는 이들도 복주시고, 혹시 재혼하는 가정에도 합당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회적 편견 속에 아이를 양육하는 미혼모들도 있사오니 이들도 보살피 주시옵소서. 한국사회와 교회가 이해하고 격려하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사회의 모든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로 온전하게 서도록 돕게 하옵소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가정을 격려하며, 출산하는 어머니들을 돕게 하옵소서.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필요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기쁜 언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충만하게 주시어서, 봄날의 꽃과 같이 생기가 가득한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교회 회복을 기원하는 월삭기도회 5월 기도문

※ 기도 제목

1. 우리나라의 모든 가정에 사랑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 가족간에 화목하지 못한 가정이 있으면,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3. 다문화 가족들이 서로의 다름을 축복으로 받아들여 가정을 지키게 하소서.
4. 재혼하거나 황혼 결혼하는 이들이 용기를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게 하소서.
5. 사회적 편견 속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미혼모들에게 용기와 능력을 더하옵소서.
6. 믿음의 가정이 사회 속에서 본이 되도록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